

존 오스왈트 박사, 킹스, 세션 13

열왕기상 16장

© 2024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우리는 열왕기서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 당신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해졌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당신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교사인 저에게도 영감을 주시고, 듣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감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을 함께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위해, 당신을 통해, 당신 안에서 더 잘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5장과 16장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BC 930년경 솔로몬의 죽음과 BC 874년경 아합의 즉위 사이의 중간 기간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13, 14, 15, 16장에서는 대략 55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사는 주로 유다 왕이었습니다. 르호보암과 그의 아들 아비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다. 대부분의 기간 동안 아사는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아사는 41년 동안 통치하면서 유다 왕국을 견고한 기반 위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네 왕조의 흥망성쇠를 겪었습니다. 4개의 서로 다른 지배 가문. 차례로 그들은 살해되고 다른 왕조로 대체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 885년부터 874년까지 오므리가 출범한 네 번째 왕조로 인해 북쪽 왕국에는 어느 정도 질서와 안정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17장에서는 엘리야 슬래시 엘리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금은 일부러 그렇게 해요.

나는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말하지 않고 엘리야/엘리사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것은 85년 동안 이어져 온 하나의 예언 사역이지만 두 가지 다른 목소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음성과 엘리사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예언 사역입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13장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오늘날 우리 연구에서 이어지는 기간입니다. 15장 24절에는 바사 왕에 대하여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34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그의 죄로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였느니라. 15:34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그 죄 가운데로 행하였더라. 자, 이 두 진술 사이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이스라엘에게 범죄케 한 그 죄 가운데 행하였다 하는 것과 차이가 있겠습니까? 글썄요, 제 생각에는 그것들이 정말 동의어인 것 같아요. 그들은 실제로 두 가지 비슷한 말을 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 양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로보암이 주로 행한 일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남쪽의 벰엘과 북쪽의 단에 두었던 것, 곧 우상 숭배를 범한 것임이 분명하니 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이고, 같은 의미로 달력을 변경하여 절기를 한 달 뒤로 미루고 아론 계열이 아닌 제사장들을 임명하게 하여라. 정녕 그 일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이니라. 하지만 내 생각엔 우리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로보암이 이런 일들을 저지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들이 틀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틀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근본적인 문제이다.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옳다, 이것은 좋다, 저것은 그르다, 저것은 악하다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 옳고 그른가? 선과 악은 무엇입니까? 옳은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의 창조 목적, 즉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방식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창조 목적, 즉 그분이 세상을 만드신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님께서 따르시는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영원한 표준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옳고 그름은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이 행한 일이 악하였으니 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음이더라.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 삶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지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창조자가 나에게 시킨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그분이 현실의 본질에 세우신 그분의 기준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은 우상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좋은 사람인가?가 아닙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요, 문제는 내가 구세주를 기쁘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창조자를 기쁘게 하고 있는가? 나는 그가 원하는 대로 기능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모든 도덕성의 바탕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종종 그것들을 분리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이 있다고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옳고 그름은 계속해서 침식되고 있습니다. 글썄, 당신은 그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것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왜?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주와의 관계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분이지 당신과 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진술은 우리가 이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의 삶에서 보아왔고,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든 후계 왕에게서도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중 18개. 그들 모두는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습니다. 어머. 전에도 말했지만 다시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끔찍하고 끔찍한 길입니다. 여로보암은 그의 모든 후계자를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모두 그 패턴을 따랐.

그리고 그들은 그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아사와 함께 우리는 처음으로 어떤 실질적인 왕을 갖게 되었습니다. 24년 동안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는 북쪽에서 그의 강력한 통치로 인해 아사에게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15장 16절에서 21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24년의 통치는 아주 몇 마디 말로 무시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마무리할 오므리를 포함한 몇몇 더 중요한 왕들에게도 해당될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것이 공정한가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은, 만약 그가 24년 동안 통치했고 명백히 꽤 중요하고 실질적인 왕이었다면 그가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은 논의를 받을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열왕기서에서 왕이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통치, 정부, 군사적 성취를 바탕으로 심판을 받고 있습니까?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아니요.

이 왕들은 무엇으로 심판을 받는가? 그들은 무엇보다도 여호와께 충성했는지 여부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둘째, 그들은 야훼나 다른 신의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세 번째, 그들은 언약을 지켰습니까? 특히 그들이 무력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언약의 의미를 지켰습니까? 그것이 판단의 근거이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볼 때 바아사의 24년은 놀라운 실패였습니다. 우리는 모른다; 그가 여호와께 불충성했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가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로보암이 그랬고, 바사가 걸어온 길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상을 만드는 것이 왜 죄가 됩니까? 우리는 이전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의 일부로 만드는 것은 그를 완전히 무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데도 없었으며 혼자서 받아들이면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목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문화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그곳에서 쫓아내면서 우리 자신을 무의미하고 무의미한 존재로 정죄했습니다.

야훼를 우상으로 만들면, 그는 더 이상 이 세상 밖에 서서 의도적으로 세상을 만들었고, 세상을 정해진 목적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그분과의 관계로 부르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상숭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바샤는 실패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공평한가? 24년 동안 통치하고 중요하고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 이런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 공정합니까? 글썄요, 첫째, 무엇이 공정한지는 누가 결정하나요? 너, 나, 바샤?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실패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셨을 다른 모든 중요한 일들이 하찮게 보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친구 여러분,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은 어떻습니까? 나는 가장 중요한 일에서 성공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결국 관 뚜껑을 닫으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수백 가지 다른 일에 성공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 영혼을 위하여 무엇을 주겠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여기 Kings에서 이미 제기되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바샤를 바라보며 그들의 죄로 나를 화나게 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그것이 16장 2절입니다. 이것이 이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 외에는 그를 볼 수 없습니다. 아나니의 아들 예후. 그리고 그는 바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느니라.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느니라. 그 문구는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에서 자주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죄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샤가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여 하나님을 진노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술에서 어떤 신학적 진리가 나오는가? 우선,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상처받고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나타나는 두 번째 사실은 죄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자극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도발적이라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화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완전히 무감각한 상태로 하늘에 앉아 아, 그들이 또 그런 짓을 했다고 말하는,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가 하는 일, 우리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방식에 감동받는 사람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른 구절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질투하실 만큼 분노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평판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삶에 하고 있는 일을 질투합니다. 이 왕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일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당신과 내가 거울을 볼 때,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보는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처럼 바사의 아들 엘라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통치할 운명이었습니다. 본문에는 그가 2년 동안 통치한 후 아사 제26년에 즉위하여 아사 제27년에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라고 말했습니다. 2년이 아니라 1년이네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그가 2년 동안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즉 아사 제26년과 아사 제27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계속해서 보는 것의 예입니다. 그가 너무 오랫동안 통치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산해보면, 다른 왕의 몇 해에 그가 통치를 시작했고, 어떤 왕이 통치를 마쳤습니까?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입니다. 그것은 연도에 걸쳐 계산되며 두 왕국, 유다와 이스라엘은 별도의 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열왕기의 숫자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앉아서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들은 손에 있는 소스를 사용하여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통치했습니다.

왜? 출애굽기 34장 7절을 근거로 하여 조상들의 죄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라는 아버지의 죄로 인해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아르사의 집에서 그가 술을 마시고 있을 때에 시므리가 들어와 그를 죽였습니다. 엘라는 매우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절로 갑니다.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범죄하여 이스라엘로 범하게 하여 그 우상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노를 격발하였느니라. 예.

바사의 죄 때문에 엘라가 형벌을 받는 것인가? 예. 예. 그런데 엘라가 자신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여기서 다시 우리는 상호작용을 봅니다. 당신과 나는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엘라는 왜 죄인인가? 그의 아버지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잠금 단계가 아닙니다. 부모의 영향력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죄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 세대에 걸쳐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앉아서 너희가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 자녀를 주리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죄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영향력 측면에서, 당신이 한 일을 다음 세대가 어떻게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측면에서. 그래서 여로보암이 나답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나답은 바아사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바아사는 엘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라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당신과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나쁘다면 우리는 선배들이 선택한 길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아, 영향이 있을 겁니다.

효과가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가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엘라는 아버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샤는 할아버지 여로보암이 처음 출발했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기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길을 매우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아사의 통치 기간에 북왕국을 통치했던 세 번째 왕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 그것은 모든 왕조 중에서 가장 짧은 왕조이다. 시므리 왕조입니다. 우리는 앞서 그 구절을 읽었습니다.

엘라는 티르사에 있었다. 티르자 (Tirza)는 북왕국의 수도이다. 유다 왕 아사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 궁궐의 관리인 아르사의 집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서 그를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9절에 보면 시므리는 병거의 절반을 지휘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그를 대령으로 만든다. 그는 엘라의 병거 부대의 절반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군은 누구입니까? 16장 16절에 따르면 그 장군은 군대장관 오므리입니다. 그것이 그를 장군으로 만든다. 그래서 대령이 쿠데타를 일으켜 왕을 죽였습니다.

군대는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리 대령이 왕을 죽였다는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지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16절, 그러므로 그 날에 진영에서 온 이스라엘이 오므리를 군대장관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그들은 국가를 통치하는 대령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군은 확실히 대령에게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를 이야기에 끌어들이고 지시하는 데 사용된 흥미로운 서술

장치를 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여기서 약간의 지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은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과 사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의 국경은 대략 그런 것입니다.

여기 위쪽에는 한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다른쪽에는 그리심산이 있는 세겜이 있습니다. 여기 세겜에서 북쪽으로 가는 가파른 협곡이 있는데 그 협곡의 바닥에 디르사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디르사를 수도로 선택한 이유는 디르사가 남쪽에서 쉽게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블레셋 국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아래에는 기벤훈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은 북쪽으로는 이스라엘과 남쪽으로는 블레셋 사람들 사이의 일종의 국경 도시입니다.

이 이름은 여러 부족 영토의 경계와 관련하여 여호수아서에 두 번 나타납니다. 열왕기 15장에 나오는데, 바아사가 나답을 죽일 때 나답이 싸우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디르사에서 엘라를 죽이는 시므리가 있고, 아래에는 오므리가 병거의 나머지 절반과 나머지 군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이 왔어요. 짐리 대령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왕을 대적하여 음모를 꾸몄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말했듯이, 군대는 우리가 짐리 대령의 통치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통치를 받게 된다면 우리는 오므리 왕의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는 그곳에서 오므리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온 이스라엘에 이 문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것은 북쪽 왕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다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경우를 겪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경우를 겪게 될 것입니다. 유다와 온 이스라엘이여.

그리고 우리는 '잠깐만요. 유다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아닌가요?'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응, 원래는. 그러나 지리적으로 두 지역은 다소 다른 지역이며, 여호수아서에는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온 이스라엘이 오므리 왕으로 즉위했다고 들었습니다.

글쎄, 별로. 온 이스라엘의 군대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일을 한 북쪽 왕국의 대표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몇 구절 뒤에 시므리가 7일 동안 통치했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오므리는 디르사를 포위했습니다. 천국에서는 즉시 재생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것을 보고 싶다. 즉, 그들은 일주일 만에 군대 전체를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약 40마일.

그리고 Tirza, 실레합니다, Zimri, 여기 z가 모두 들어있어요. 시므리는 벽에 쓴 글씨를 보았습니다. 끝났어.

그래서 그는 무엇을 했나요? 그는 왕궁에 들어가서 아마도 술에 취해 왕궁에 불을 지르고 죽었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시므리에 대한 이러한 묘사를 통해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엘라가 술에 취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시므리가 와서 그를 쳐죽였습니다.

빙고. 이제 그는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7일 후, 군대는 도시를 포위했습니다.

시므리는 그 성이 함락된 것을 보고 왕궁 산성에 들어가서 왕궁을 불로 불사르고 죽으리라. 나는 시므리를 일종의 충동적인 사람으로 봅니다. 나는 그가 엘라를 죽일 계획을 세웠는지 전혀 확신하지 못하지만 그는 궁전으로 들어갔다.

그는 술에 취해 무력한 상태입니다. 짐리는 빙고로 그를 죽여버리라고 말합니다. 나는 왕이 될 것이다.

그는 생각합니까? 아니요. 전에도 말했듯이, 죄는 당신을 멍청하게 만듭니다. 그는 여기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군대가 나를 따라갈 것인가? Amri가 정말 나에게 복종할까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났으면, 그 곳을 불태워버리고 죽으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르게 만드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성격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 대해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모두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격으로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일하실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는 어떻게 그 충동성을 누그러뜨릴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더 소같은 우리들 밑에 어떻게 불을 지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 있었을지, 무엇이 있었는지 봅니다. 이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목해 보세요.

21절과 22절.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백성의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았고,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암리를 따르는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르는 백성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디브니가 죽고, 암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글썄요, 분명히 일어난 일은 이 엄청난 격변 속에서 엘라는 단지 1년만 통치했고 그가 왕궁에서 술에 취한 왕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므리가 그를 죽였습니다. 시므리는 일주일 동안 지속됩니다.

이제 암리가 왕입니다. '그래, 군대가 암리 왕위를 차지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꽤 분명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왕을 위해 장군을 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티브니를 원해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틱니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가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가 법원의 고위 관리였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마도 그는 성직자와 관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뿌리를 거부하고, 종교적 기반을 거부하고, 노력하면 만회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혼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시편을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시는 나라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거부할 때 혼란이 뒤따른다고 해서 전혀 놀라서는 안 됩니다.

이제 디브니가 자기 백성에 의해 암살되었는지, 그가 전투에서 패했는지, 이 부대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본문에는 암리가 디르사에서 6년 동안 통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스말 산을 사서 그가 건설한 성읍을 사마리아라 부르게 되었다.

사마리아는 해안을 바라보고 있으며 아름다운 원뿔형 언덕입니다. 그 도시는 그 꼭대기에 있는데, 해안으로 이어지는 이 넓은 계곡의 바로 머리 부분에 있고, 그 아래에는 이집트로 이어지는 큰 국제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했던 것과 약간 비슷합니다.

다윗은 유다와 베냐민의 경계에 있는 이 성읍 곧 예루살렘이라는 성읍을 점령하여 그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 도시는 어느 부족에도 속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것은 다윗의 것이었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암리는 이 언덕 꼭대기를 사서 그곳에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암리의 것입니다. 암리는 이스라엘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 협곡에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여기 앉아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모든 것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날이 왔습니다. 바로 Amri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암리의 통치에 대해 별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는 11년, 11년 반, 12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 중 여섯은 디르사에 있고, 여섯은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그러나 100년 후, 아시리아인들은 이스라엘을 암리 족속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암리 왕조는 그 시점에서 오래 전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는 다시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다시 한 번 그의 통치를 일축하고 무서운 말을 합니다. 26절,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 가운데로 행하고 그 우상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느니라. 그런데 25절을 보십시오.

암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악을 더욱 심히 행하였더라. 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모른다.

하지만 추측이 있어서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내 추측으로는 그는 이스라엘을 세계 상업에 개방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세계의 신들에게도 개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이 한 일을 알기 때문에 암리가 그들을 이끌고 천국에 가는 길은 많다고 의심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대 전통 신 야훼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 다른 방법도 너무 많아요. 아시다시피 세상은 넓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우리는 더욱 포용적이어야 합니다. 궁금해요.

궁금해요. 이제 암리의 아들 아합 왕(16장 2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다 왕 아사 제38년에. 맏소사. 아사가 본 이스라엘 왕은 몇 명입니까?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암리, 아합.

아사의 통치 기간에 일곱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사의 통치가 유다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엔 북쪽에서 모든 것이 풀리던 41년 동안 어떤 것들이 못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북쪽에서 상황이 마침내 점점, 인용되고, 못 박혀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왕국 중 항상 더 부유하고, 더 부유하고, 더 국제적이었습니다. 유다는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여기 산등성이에 고립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남쪽 국경은 항상 에돔과 유다 사이에 약간의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경작할 수 있는 땅이 더 많았습니다. 그것은 그 거대한 국제 고속도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홍해의 아카바 만에서 다마스쿠스까지 이어지는 다른 대규모 국제 고속도로와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 권력, 다산, 이 모든 것들이 그곳에서 이용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Amri와 함께 모여서 제가 말했듯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은 그의 후계자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30절).

그리고 암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많이 행하였더라. 아 이 응. 암리는 그의 조상들을 능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은 죄에 있어서 그의 아버지를 능가합니다. 어떻게? 31.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작은 일로 여겨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경배하고 그를.

이제 제가 Amri에 대해 말한 것이 옳다면 Amri는 그렇습니다. 야훼는 우리의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다른 모든 신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합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알을 숭배할 것입니다. 아마 그가 '나는 야훼와 바알을 함께 숭배하겠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은 분명히 거기에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떤 야훼도 숭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늘 섬겨오던 나의 바알신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아합은 왜 이세벨과 결혼했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이것을 설계한 사람이 Amri라고 믿습니다. 암리가 한 일 중 하나는 더 이상 이웃과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사와 바샤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더이상. 그래서 암리가 한 일 중 하나가 이웃과 화해하는 일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당신의 아들딸을 이웃의 아들딸과 동맹을 맺어 결혼시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내가 이세벨과 결혼할 것 같다고 말한 사람은 아합뿐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엔 Ethbaal에게 '여기 있는 너희들과 동맹을 맺고 싶다'고 말한 사람이 Amri인 것 같아요.

내 아들 아합과 당신의 딸 이세벨을 결혼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나요? 다시 한 번 우리는 이러한 표류를 봅니다. 몇 년 전에 나는 그것을 보았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나는 작은 경구를 보았습니다. 믿음의 상실이 폭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누출이 느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느린 누출입니다. 글썄요, 우리는 계속해서 야훼를 숭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우상도 만들 것입니다.

글쎄요, 우리는 계속해서 야훼를 숭배하겠지만, 다른 유효한 숭배 방법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와를 숭배할 것이지만, 또 다른 신도 숭배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리석은 야훼를 조금씩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내 자신에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께만 드리는 예배에서 벗어났습니까? 나는 그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나요? 그만해요. 그만해요. 여로보암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Basha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므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합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 각각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당신은 잠에서 깨어나 당신의 옛 믿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다가 그것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사라 졌어요.

거기에 없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많이 행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그것이 자기에게는 가벼운 일인 것처럼 아내 이세벨을 데려오고 가서 바알을 섬기며 그를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아합과 함께 가장 낮은 지점인 최저점에 도달하는 비극적인 하향 경로를 봅니다. 그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현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생명을 바친 언약이 단순히 지워지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사람들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내 생각에 이에 대한 한 가지 암시는 16장의 맨 마지막 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의 시대, 아합 시대에 베엘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느니라. 그가 그 기초를 쌓았을 때 그의 장자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웠을 때 막내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았더라. 흠,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자, 다시 여호수아서 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 여리고는 약속의 땅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26절, 성이 무너지매 그 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일어나 이 성을 중건하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장자를 희생하여 그 기초를 놓을 것이다. 그는 막내 아들을 희생하여 성문을 세울 것이다. 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프로세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그 집을 재건하려면 장자를 희생하여 성벽을 봉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둘째를 희생 하여 성문을 봉헌합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땅 주인에게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26. 여호수아 6.26. 그들은 땅을 선물로 소유합니다. 주인이 주신 선물.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더 이상 토지 소유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소유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여기 여리고가 재건되었습니다. 실제 의미에서 이 순간은 경고 중입니다.

이 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주었다. 그리고 이 재건되지 않은 도시는 내가 너희에게 준 증거였다.

이제 도시가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경고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3장, 14장, 15장, 16장에서 여로보암에서 아합까지 그리고 르호보암에서 아사까지의 이 이야기를 볼 때, 한편으로는 유다를 향한 마음이 온전한 이 사람 아사에 의해 결속되어 있음을 봅니다. 주님.

완벽한 성능은 아닙니다. 그는 모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의 이야기의 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실상 하나님께 팔려 나갔습니다. 우상도 없고, 다른 신도 없고,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북쪽에서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읽을 때까지 아래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는 가서 바알을 섬기고 경배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집에 바알을 위한 단을 쌓았습니다. 수도에 있는 바알 신전.

다산의 여신인 아세라를 만들었습니다. 아합은 그 이전의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그래서, 이 시점에 있습니다.

유다님, 좋아 보이네요. 이스라엘은 아주 아주 나빠 보입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자.

아, 아버지. 아, 아버지. 우리가 거기로 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당신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온전히 당신의 것임을 매일 모든 면에서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왕좌의 방에 다른 어떤 것도 들여보내지 마십시오.

지성소에는 다른 어떤 것도 들여보내지 마십시오. 경쟁자도, 한계도 없이 우리 모두가 당신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